
광주 ‘인사이트(Insight) 경제’

- 정체되어 있는 광주지역 가계소득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사) 경 제 문 화 공 동 체 더 함

광주광역시 북구 호동로 3-2(용봉동)3층

T. (062) 431-6339 F. (062) 262-6340

E. eccplus@hanmail.net

홈페이지 <http://www.eccplus.co.kr>

작성자 (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 기획본부장 최 성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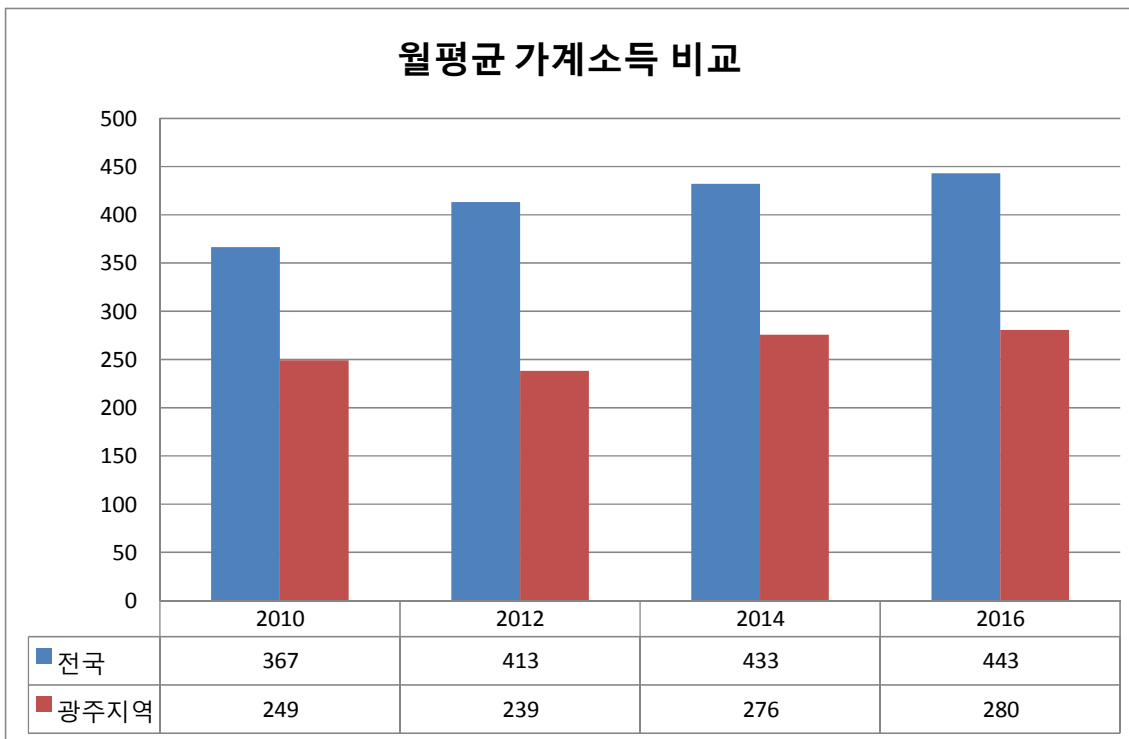
본 보고서는 (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의
공식입장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제1절 광주지역 월평균 가계소득

1) 광주지역 월평균 명목 가계소득¹⁾은 전국 평균 대비 63% 수준

- ‘광주지역 월평균 명목 가계소득’은 2010년 249만원, 2016년 280만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2%이며, 2016년 기준 ‘전국 월평균 명목 가계소득²⁾’의 63% 수준에 그침
- ‘전국 월평균 명목 가계소득³⁾(도시, 2인 이상)’은 2010년 367만원, 2016년 443만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3.2%로 ‘광주지역 월평균 명목 가계소득’ 증가율인 2%보다 1.2%p 높게 나타남
- 2010년 기준으로 ‘광주지역 월평균 명목 가계소득’은 전국 대비 68% 수준이었으나, 2016년은 63% 수준으로 하락하여, ‘전국 월평균 명목 가계소득’ 금액과의 격차도 확대되고 있음

〈그림 1-1〉 전국 VS 광주 월평균 명목 가계소득 (단위:만원)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광주광역시 광주시회지표조사 재구성

- 1) 광주광역시 (2010~2016년), ‘가구당 월평균 가구소득’, 광주시회지표를 참조함
통계청(2016)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의 가구당 경상소득은 연 4,889만원(월 407만원)으로 집계되나, 표본 규모가 550~700가구임. 반면 광주광역시 광주시회지표조사 표본 규모는 245개 조사구, 4,900가구(조사구당 20가구)로써 광주시회지표 조사에 따른 월평균 가구소득의 신뢰성이 더 높다고 판단함
- 2) 명목소득은 화폐소득이라고도 하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지 않은 소득을 말한다. 반면 실질소득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소득으로 실질적 구매력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명목소득이 늘어났다고 해도, 생활필수품의 가격이 동시에 상승하면 실질소득에는 변동이 없다
- 3) 통계청(2016), 가계소득지출, 가계동향조사,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도시, 2인 이상)

2) 광주지역 연평균 명목 가계소득 증가율은 물가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이며, 전국 소득 3분위에 해당함

○ 2010~2016년 광주지역 연평균 가계소득 증가율은 2.0%이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7%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표 1-1〉 가계소득 증가율과 물가상승률 비교

구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연평균 증가율
광주지역 월평균 가계소득(만원)	249	239	276	280	2.0%
광주지역 소비자물가지수 ⁴⁾	91.5	96.9	99.7	100.9	1.7%

○ 소득수준에 따라 소비지출 항목별로 지출비중과 물가상승률이 다르므로 체감물가상승률도 다를 것으로 예상됨

- ‘광주지역 월평균 명목 가계소득’ 은 280만원이며, 이를 ‘전국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도시,2인이상)’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국 소득 3분위 수준에 해당함(아래 표의 음영부분)

〈표 1-2〉 전국 소득 10분위별 가계수지항목

가계수지항목	전체평균	2분위	3분위	4분위	10분위
소득 (원)	4,426,753	1,934,147	2,630,693	3,224,233	10,049,865
(1)가계지출 (원)	3,394,762	1,791,600	2,220,174	2,630,437	6,748,026
소비지출 (원)	2,572,560	1,492,307	1,812,498	2,107,004	4,605,933
- 식료품·비주류음료 (원)	348,834	284,628	297,860	308,022	465,850
- 주류·담배 (원)	34,278	26,368	31,788	35,725	39,501
- 의류·신발 (원)	158,428	77,299	98,366	128,672	305,563
- 주거·수도·광열 (원)	276,889	244,560	254,690	276,198	371,541
- 가정용품·가사서비스 (원)	110,555	63,268	67,994	81,257	237,696
- 보건 (원)	178,951	133,905	141,389	132,791	274,342
- 교통 (원)	304,394	127,191	185,741	213,892	703,425
- 통신 (원)	144,029	93,502	125,385	143,785	189,997
- 오락·문화 (원)	151,079	69,442	90,162	109,048	325,019
- 교육 (원)	294,226	92,546	129,357	208,841	629,715
- 음식·숙박 (원)	350,723	174,559	250,566	294,446	623,614
- 기타상품·서비스 (원)	220,173	105,039	139,199	174,326	439,671
비소비지출 ⁵⁾ (원)	822,202	299,293	407,676	523,433	2,142,094
(2)흑자액	1,031,991	142,547	410,520	593,797	3,301,839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도시, 2인이상)

4) 통계청(2016), 소비자물가지수조사,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5) 비소비지출 : 경상조세, 비경상조세, 연금, 사회보험, 이자비용, 가구간 이전지출, 비영리단체로 이전

- ‘광주지역 월평균 명목 가계소득’ 수준에 해당하는 ‘전국 소득 3분위’ 의 월평균 소비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소비지출 중 식료품/비주류음료가 16.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주거/수도/광열이 14.1%, 음식/숙박이 13.8%, 교통이 10.2% 순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지출 비중이 높은 항목의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다소 높게 나타남
 - 2010~2016년까지 광주지역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7% 수준이었으나 각각 소비지출항목별로 살펴보면, 지출비중이 높은 식료품/비주류음료의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3.0%, 주거/수도/광열의 상승률은 2.0%, 음식/숙박 상승률은 2.3%로 나타나, 지출항목별 물가상승률은 광주지역 소비자물가상승률 보다 0.3%~1.3%p 높게 나타남 (아래 표의 음영부분)
 - 결과적으로 광주지역 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상승률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1.7% 보다 높게 나타남을 의미함

〈표 1-3〉 3분위 가계수지항목과 광주광역시 소비자물가지수 비교

가계수지항목	3분위		광주광역시 소비자물가지수				연평균 상승률
	금액	비중	2010	2012	2014	2016	
소비지출 (원)	1,812,498	100.0%					
- 식료품 · 비주류음료 (원)	297,860	16.4%	85.9	96.7	98.2	102.3	3.0%
- 주류 · 담배 (원)	31,788	1.8%	62.6	64.0	64.9	100.3	8.2%
- 의류 · 신발 (원)	98,366	5.4%	85.2	92.2	98.9	101.9	3.0%
- 주거 · 수도 · 광열 (원)	254,690	14.1%	87.4	95.1	101.7	98.2	2.0%
- 가정용품 · 가사서비스 (원)	67,994	3.8%	89.5	95.9	98.2	101.9	2.2%
- 보건 (원)	141,389	7.8%	94.8	97.2	98.9	100.7	1.0%
- 교통 (원)	185,741	10.2%	102.6	113.1	110.2	97.2	-0.9%
- 통신 (원)	125,385	6.9%	104.8	100.5	100.2	100.1	-0.8%
- 오락 · 문화 (원)	90,162	5.0%	96.1	97.7	99.6	101.5	0.9%
- 교육 (원)	129,357	7.1%	92.5	94.5	98.7	101.0	1.5%
- 음식 · 숙박 (원)	250,566	13.8%	90.3	95.0	98.6	103.4	2.3%
- 기타상품 · 서비스 (원)	139,199	7.7%	93.9	93.2	97.7	104.4	1.8%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도시, 2인이상) 자료와 통계청 물가동향과(소비자물가조사)자료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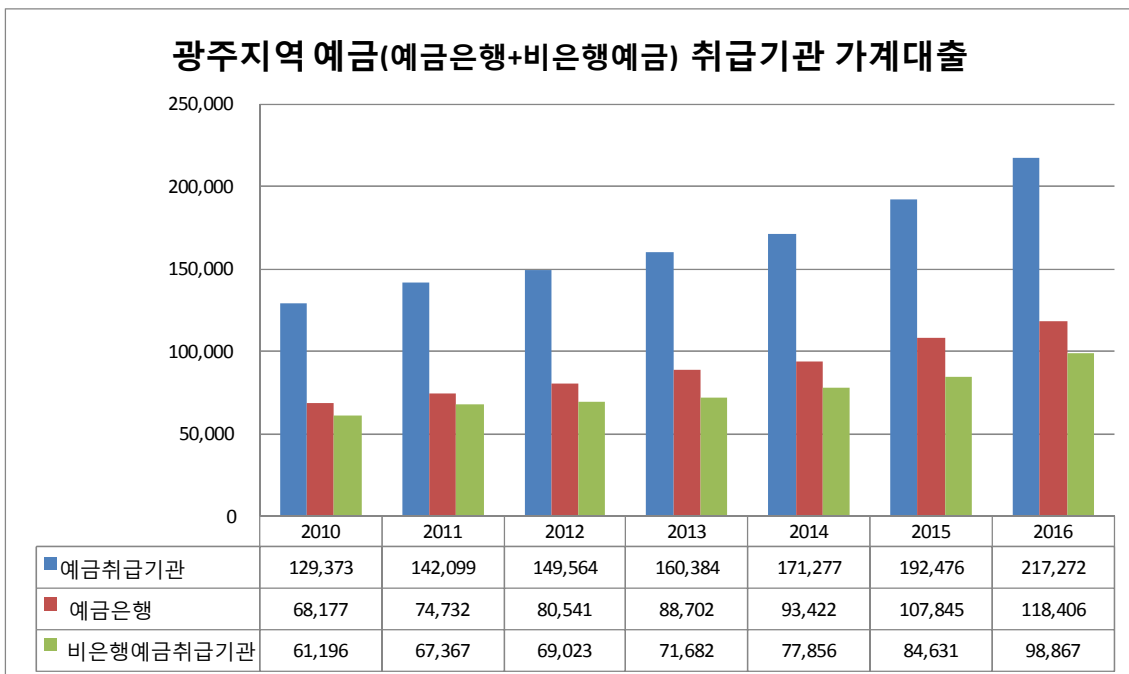
- ‘〈표1-2〉 전국 소득 10분위별 가계수지항목’ 을 살펴보면 광주광역시 가계소득 수준은 3분위에 해당하며, 흑자액은 월 41만원(연 500만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됨
 - 다만, 가계의 소득수준과 월 흑자규모는 가계 대출 규모와 비교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가계의 흑자규모는 외부 환경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생활안전망 역할을 하지만, 가계대출이 증가하면 가계의 흑자액은 대출 변제에 사용될 수 밖에 없음

제2절 광주지역 가계대출

1) 2016년 광주지역 예금(예금은행⁶+비은행예금⁷)취급기관 가계대출 잔액 규모는 21조 7,272억원으로 높은 수준임

- 2010년 광주지역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잔액은 12조 9,373억원에서 2016년 말 21조 7,272억원으로, 지난 6년 동안 규모면에서는 8조 7,899억원, 연평균 9% 증가함
 - 특히 같은 기간 동안 광주지역 월평균 명목 가계소득은 2010년 249만원에서 2016년 280만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2% 수준이지만, 가계대출 규모는 연평균 9%씩 증가하여, 가계소득 증가율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임
 - 또한 최근 1년 동안 예금은행 대출은 2015년 10조 7,845억원에서 2016년 11조 8,406억원으로 1조 561억원 증가하였으나,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대출은 2015년 8조 4,631억원에서 2016년 9조 8,867억원으로 1조 4,236억원 증가함

<그림 2-1> 광주지역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추이 (2010~2016년) (단위: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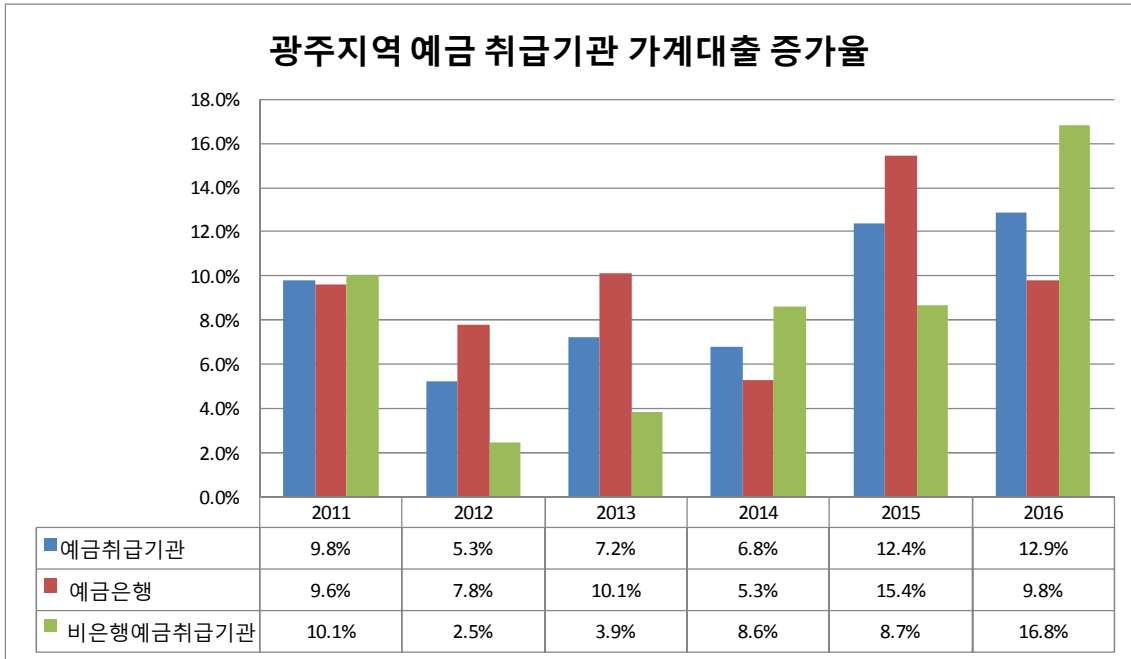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예금/대출금/기타금융, 가계신용,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지역별 (2010년~2016년)

- 6) 시중은행, 지방은행 및 외국은행지점과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수/축협의 신용사업부문이 있음
- 7) 종합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및 우체국예금이 있음

○ 최근 몇 년간 예금은행 가계대출보다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이는 기존 대출금액과 신용등급으로 인하여, 대출금리는 높지만 심사요건이 덜 까다로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으로 가계대출이 옮겨가는 것으로 파악됨

〈그림 2-2〉 광주지역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증가율 (2010~2016년)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예금/대출금/기타금융, 가계신용,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지역별 (2010년~2016년)

○ 2016년 기준 광주시민 1인당 가계대출⁸⁾은 1,479만원이며, 가구당 가계대출⁹⁾은 3,705만원으로 파악됨

- 광주지역 1인당 가계대출은 2010년 889만원에서 2016년 1,479만원으로 6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8.8%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가구당 가계대출도 2010년 2,392만원에서 2016년 3,705만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7.6%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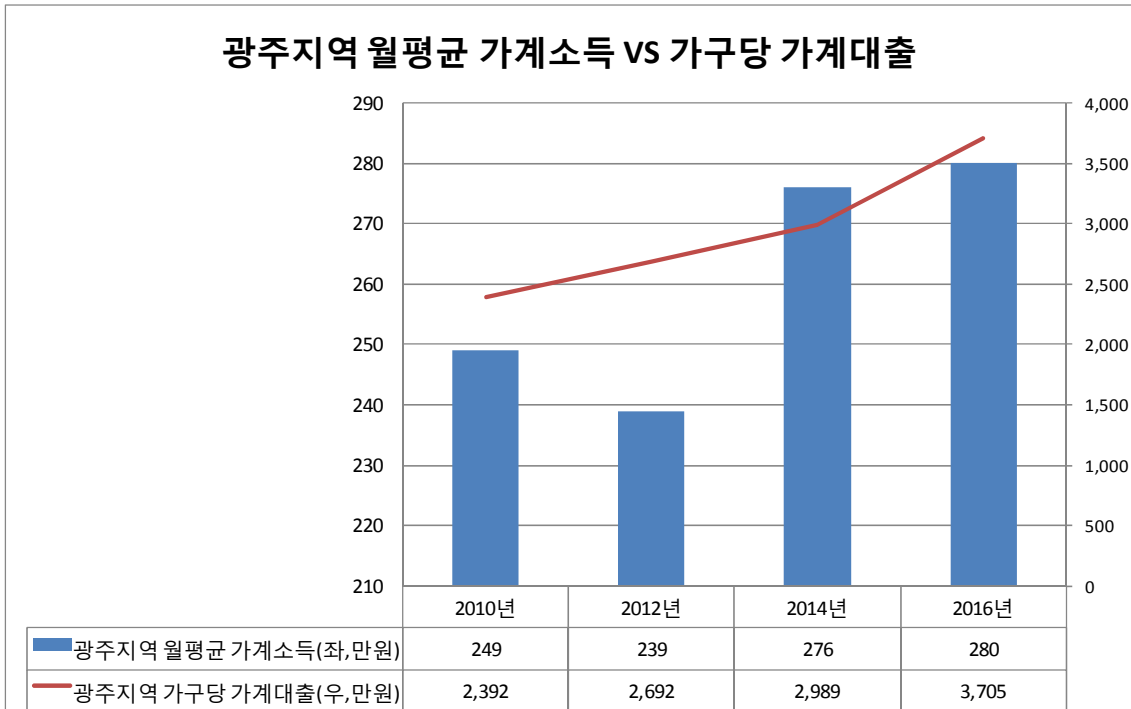
- 광주지역의 인구수와 세대수가 증가하여 자연스럽게 가계대출 총액이 증가했다기보다는 1인당 혹은 가구당 대출규모 자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됨

8) 1인당 가계대출 =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 광주광역시 주민등록인구

9) 가구당 가계대출 = 1인당 가계대출 × 가구당 세대원 수

- 광주지역 가구당 가계대출 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가계소득 월 흑자액 41만원 전액을 7.5년 동안 갚아야 대출 원금만을 변제할 수 있음
 - ‘<표1-2> 전국 소득 10분위별 가계수지항목’ 을 살펴보면 광주광역시 월평균 가계소득 수준에 해당하는 3분위의 흑자액은 월 41만원 수준으로 연평균 대략 가구당 500만원 흑자 수준임
 - 2016년 말 기준 가구당 평균 가계대출 규모는 3,705만원으로, 가계소득 월 흑자액 41만원 전액을 7.5년 동안 갚아야 대출원금을 변제할 수 있음¹⁰⁾
- 지난 6년간 광주지역 가계소득은 정체되어 있는데, 가계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0~2016년 광주지역 월평균 명목 가계소득은 249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연평균 2.0% 증가하였지만, 같은 기간 동안 물가는 연평균 1.7% 상승하여 실질 가계소득증가율은 0.3%로 매우 미미하게 증가함
 - 반면 광주지역 가구당 가계대출은 2010년 2,392만원에서 2016년 3,705만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7.6%에 달해, 명목 가계소득 증가율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남

<그림 2-3> 광주지역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증가율 (2010~2016년)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광주사회지표조사 재구성

10) 현시점 가계대출 3,705만원 중 500만원을 변제했다라도, 내년에는 잔금에서 이자가 가산되기 때문에, 실제로 대출원금 변제기간이 더 길어짐. 총 대출금을 변제하는 기간은 대략 9년으로 추정됨

제3절 결론 및 제언

□ 광주지역의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산업적 측면, 경제적 측면(비용절감), 정책적 측면 3가지를 고찰 하고자 함

1) 광주지역 내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¹¹⁾과 아울러 고부가가치 분야인 스마트홈 산업까지 확장이 필요

○ 광주지역 내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을 통해 지역 내 산업 CAPA¹¹⁾를 높여, 시민의 소득을 개선시키는 정책은 긍정적이지만, 단일 산업에 대부분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외부환경 변화에 그만큼 취약할 수 있음

- 조선산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어려움에 처한 거제시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산업이 분산된 울산광역시를 비교해 보면, 지역의 산업을 단일 업종에 집중하는 것은 외부환경 변화에 취약할 수 있음을 방증함

○ 제조업 중심의 자동차 생산기지 조성 뿐 아니라 자율주행차와 같은 ICT¹²⁾가 접목된 스마트카 분야와 더 나아가 스마트홈(가전+통신+건설) 분야까지 확장이 필요함

- 광주지역에는 가전을 생산하는 삼성광주전자,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LG이노텍, 호남지역에 기반을 둔 중흥건설, 호반건설, 모아건설 등의 중견건설업체들이 위치하여 이들 산업간 융합을 통해 스마트홈 분야로까지 확장이 가능함

2) 광주지역 가계소득이 정체되고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유경제¹³⁾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가용소득을 늘릴 필요가 있음

○ 기존의 소유 중심의 대량생산, 대량소비 방식에서 벗어나 공유 중심의 협력적 생산소비 방식¹⁴⁾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공유경제는 이용자와 대여자 사이의 직거래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거래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이 증대될 뿐 아니라 공급자도 유희자원으로부터 추가적인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여¹⁴⁾ 가용 소득이 늘어나고 자원낭비를 줄일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

11) Capacity 의 약자로 생산능력, 용량, 수용력을 의미함

12)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는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의 합성어로 정보기기의 하드웨어 및 이들 기기의 운영 및 정보 관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술과 이들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 생산, 가공, 보존, 전달, 활용하는 모든 방법을 의미함

13) 2008년 미국 하버드 법대 '로렌스 레식' 교수에 의해 처음 사용된 말로, 물품, 서비스, 정보 등을 소유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나눠 쓰는 새로운 경제모형을 말함.(두레, 품앗이, 아나바다 운동이 확대된 개념)

14) 박건철·이상돈(2016), 『도시·사회혁신을 위한 디지털 공유경제』, 서울디지털재단

- 가계소득은 정체되어 있고, 가계대출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기존의 소유 중심의 대량소비 방식과 ‘과소유(過所有)증후군¹⁵⁾’ 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음

〈표 3-1〉 전통경제와 공유경제의 비교

전통경제		공유경제
소유	패러다임 변화 ▶	이용 및 공유
이윤 극대화		가치 극대화
자원고갈		자원절약
이윤창출		가치창출
주체간 경쟁		주체간 신뢰
개별적 소비, 과잉소비		협력적 소비

자료 : 김형균·오재환(2013), 『도시재생 소프트웨어로서의 공유경제 적용방안』, 부산발전연구원

- 2013년 ‘광주광역시 공유 촉진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지역 내 공유경제의 사회적/문화적 확산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는 미흡
 - 광주지역의 모든 기초자치단체들도 공유 촉진 조례가 2015년~2016년에 제정되었고, 공유 광주, 광주채능기부센터, 광산구 공유문화플랫폼(공자다방), 아리바다 등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나, 광주광역시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홍보와 공유경제에 대한 방향성 및 시책화가 미흡하여 시민들에게 확산되어 있지 않음
 - 공유경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확산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아울러 실행 단위에서는 마을공동체를(작은 도서관 포함) 중심으로 확산 운동이 필요함
- 사회적경제 기업들간의 연대와 협업을 통한 공유경제 실행 모색 가능
 - 호혜, 나눔의 정신을 구현하는 사회적경제 기업들간 연대를 통해 공유경제에 대한 저변이 확산 될 필요가 있음
 - 광주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은 중간지원조직, 당사자조직 연합회 및 협의회, 지자체 간의 거버넌스가 구축되어 있으므로, 플랫폼만 갖춰지면 실행단계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3) 광주지역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담론 형성 및 대안적 정책들을 고민해야 할 시점

15) 빈부에 상관없이 돈이나 물건을 더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 신경질, 우울감, 불안감 등의 증세를 보이는 현상 (2015년 미국의 문화예측 전문가 제임스 월먼)

- 인공지능, 로봇, 사물 인터넷, 빅 데이터 등이 중심이 된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육체노동 뿐 아니라 정신노동까지 대체하여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전망이다¹⁶⁾
 -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를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불안정 노동¹⁷⁾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런 상황에서 기본소득은 불안정 노동자의 생활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향후 일자리 및 가계소득의 불안정성에 대비하여 기본소득에 대한 담론 형성 및 대안적 정책들을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고민해야 될 시점임

16) 2016년 다보스포럼 보고서는 선진 15개국에서 2020년까지 7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그 중에서 2/3는 사무행정직 일자리) 200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나서 전체적으로 일자리 510만 개가 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WEF, 2016:13)

17) 불안정노동은 직업 안정성, 임금, 사회보장 수준이 낮고, 해고 보호 장치가 없고, 직업 훈련과 작업장 안전도가 낮고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것은 고용의 지속 가능성, 노동과정에 대한 통제 정도, 규제보호의 정도, 소득 수준 등을 기준으로 판별한다(Standing,2011)
 불안정노동은 고용 지위(자영업, 임시노동, 직접고용, 간접고용 등), 고용 형태(임시직, 정규직, 풀타임, 파트타임 등), 노동시장 불안정성 사회적 맥락과 장소에 의해서 형성된다(Vosko,2006)